

Sinopec, 중국 최대기업 굳혔다!

신화통신, 2009년 매출액 241조원 ... PetroChina 3위로 화학기업 강세

중국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기업 Sinopec이 6년 연속 외형기준 중국 최대기업으로 기록됐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기업연합회는 Anhui에서 열린 대기업논단에서 <중국 500대 기업> 발표회를 열고 Sinopec이 매출액 1조3900억위안(241조원)을 기록해 2005년 이후 6년째 중국 최대기업의 자리를 지켰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력망공사는 매출액 1조2603억위안으로 2위에 올랐고 PetroChina는 1조2183억위안으로 3위를 차지했다.

상위 3사의 매출액 합계는 3조8600억위안으로 5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의 14%에 달했다.

매출액 10위권에는 차이나모바일 4901억위안, 공상은행 4734억위안, 건설은행 3986억위안, 중국생명 3895억위안, 중궈티에젠(中國鐵建) 3555억위안, 중궈중티에(中國中鐵) 3463억위안 등이 포함됐으나 상위 3위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500대 기업의 최소 매출액은 110억8000만위안으로 전년보다 5억4000만위안 높아졌다.

500대 기업의 매출액은 총 27조6000억위안으로 6.15% 증가했으며 평균 매출액은 552억5000만위안(9조6000억원)으로 6.27% 늘었다.

500대 기업 전체 자산은 91조3000억위안, 평균자산은 1833억위안으로 1년 전보다 22.02% 급증했다.

기업연합회는 500대기업 문턱의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매출액 성장도 완만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6>